

# 우리 사회에 죽음이해가 크게 부족하다

오진탁

한림대학교 생사학 연구소

## Our Society Lacks Greatly in Understanding Death

Jin-Tak Oh, Ph.D.

Institute of Thanatology,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 서론

우리 사회에 죽음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의학의 발달에 따라 전에 찾아보기 어려웠던 뇌사, 식물인간, 안락사와 존엄사, 연명치료 중단 논란, 임사체험, 호스피스 등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이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의학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죽어가는 환자도 적절한 의학적 조치가 취해지기만 한다면, 몇 년간이나 죽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종합병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는 연명치료 장치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말기환자들이 많다. 보라매 병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이 2004년 6월 29일 내려진 이후, 환자를 퇴원 시키려고 하는 보호자와 이를 저지하려는 의사 사이의 실랑이는 계속 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자살현상도 성숙한 죽음문화의 부재와 관련된다. 생사학, 죽음준비교육, 자살예방교육도 새로운 연구와 교육 분야로 형성되면서 인간으로서 존엄한 죽음 권리, 바람직한 죽음문화의 모색 등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터부와 거부감은

뿌리깊다. 대법원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존엄사 법제화를 논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임종문화 성숙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도 몇몇 교회와 사찰에서는 죽음준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의 몇몇 노인복지기관에서 노인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실시중인 죽음준비교육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입관체험이 마치 죽음준비교육의 전부라도 되는 듯이 죽음 주변에서 머뭇거리기만 할 뿐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입관체험은 상업적으로 이용되기까지 하는 등 하나의 이벤트 혹은 퍼포먼스로 전락된 느낌이다. 죽음이 끝인지 아닌지,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인지 영적인 존재인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 핵심 내용을 가르치지 못한 채 죽음준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생사학 전문가의 부재가 결국 죽음준비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의 경우 한림대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초·중등 학교에서는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다.

### 본론

#### 1. 연명치료 중단논란과 성숙하지 못한 임종문화

환자가족의 연명치료 중단요구를 인정한 서울 지방법원(2008년 11월 28일), 고등법원(2009년 2월 10일), 대법원의 판결(2009년 5월 21일)로 인해 안락사와 존엄사

접수일: 2011년 8월 2일, 수정일: 2011년 8월 5일  
 승인일: 2011년 8월 11일  
 교신저자: 오진탁  
 Tel: 033-248-1554, Fax: 033-256-3423  
 E-mail: jtoh@hallym.ac.kr

논란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 찬반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법률적, 의학적 논의만 진행했을 뿐이다. 우리 사회는 죽음문화의 부재와 조급증으로 인해 진지한 토론과 과정을 무시한 채 존엄사 문제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 주요 언론에서는 존엄사 법제화를 서두르라는 사실을 게재했지만, 죽음이해와 임종방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 없이, 죽음문제를 법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죽음문화의 성숙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존엄사 법제화를 논할 정도로 준비되었는지 묻고 싶다. 죽음문제가 의학적 논의만으로 충분한가? 존엄사 법제화가 법률적 검토만으로 충분한가? 죽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가?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인가? 의사와 간호사는 죽음을 배운 적이 있는가? 전국의 의과대학에 죽음을 가르치는 생사학 관련 과목과 전문가가 있는가? 전국의 초·중·고, 대학에서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생사학을 연구하고 죽음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가? 2008년 가을 유명 텔런트 인재환씨와 최진실씨를 비롯한 연예인 자살, 2009년 5월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살, 그리고 2011년 봄 카이스트 대학생 4명의 연쇄 자살과 해병대 총기난사사건을 비롯한 군인의 연쇄자살 등으로 인해 그 때마다 우리 사회는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시스템 마련은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이 다 식어버렸듯이, 연명치료 중단논란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죽음이해와 개념규정의 방향에 따라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나 터부 등을 야기하기도 하고, 삶과 죽음의 방식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죽음에 대한 개념정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죽음은 물화(物化)되고 양화(量化)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인 일로 다루어지면서, 죽음담론은 종교에서조차 중요한 일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도 국토관리라는 경제적 이유가 그 논거로 제시되고 있고, 주검은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할 쓰레기로 전락되는 등 우리 사회의 죽음이해는 여전히 암울하고 불투명하다. 이런 우리 사회의 죽음문화와 관련해 원로 종교학자 정진홍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년

에 이르면, 죽음을 그런 식으로 다루는 우리 사회의 풍토가 얼마나 황량한 것인지 절감하게 된다. 자신의 죽음이 존중 받지 못하고 있고, 결국 자신이 살아온 삶이 평가절하되고 무화(無化)되어 버린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현대인의 죽음이해가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을, 현실에서 만나는 인간의 죽음 경험에서 간과하고 있든지, 망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잃어버리고 있음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죽음문화의 현실이 이렇다면, 우리는 죽음이 정말 무엇인지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1).”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소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 죽음의 질은 주요 40개국 중 32위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임종직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한국심리학회가 새로 개발한 ‘2010 한국인 행복지수’를 ‘세계인의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의 최근 자료(2007년)와 비교했더니, 우리는 98개국 중 58위였다. 경제수준은 세계 10위권으로, 물질적 풍요와 경제 성장,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행복이나 삶의 질과 죽음의 질은 여전히 중위권 혹은 하위권이어서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2). 경제가 발전하면 우리는 행복해지리라 기대했지만, 행복이나 삶과 죽음의 질은 경제적 풍요, 과학의 발전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행복학의 권위자 디너 교수는 한국 사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물질중심주의적 가치관은 최빈국인 짐바브웨보다 심하다. 행복은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배움의 즐거움, 삶의 의미와 목적, 작은 일상에서 긍정적인 것을 인식하는 태도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 사회의 물질지향은 미국인의 3배, 일본인의 2배에 달한다. 물질적 기준에서 보면 한국인의 1인당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1960년대 초반에 비해 250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삶의 만족감은 OECD에서 가장 밑바닥이다.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실패라는 ‘한국의 역설’이 발생하는 것은 현세의 물질적 만족이 한국인의 무의식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3). 그러니까 삶의 질과 행복, 그리고 죽음의 질 역시 결코 좋아질 수 없는 것이다.

## 2. 자살률 급증과 죽음준비교육의 부재

또한 자살문제도 우리 사회의 현안이 되었지만, 자살 예방 대책은 별로 진전된 게 없고 자살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자살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기개입과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므로, 자살예방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우리 사회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으니, 자살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으로 자살자는 양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가입국 중 1위로, 전통적으로 ‘자살대국’이라 알려진 일본을 훌쩍 넘어섰다. 2009년 우리나라의 사망자수는 24만 7천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497.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원인으로는 암이 140.5명으로 20년 이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순으로 많았다. 특히 자살에 의한 사망은 최근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1999년에 사망원인 7위에서 4위로 상승하였다. 2009년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15,413명으로 전년대비 2,555명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42.2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7년까지는 다소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자살자가 10만 명당 19.0명으로 급증하였다. 이후 2년간 다소 감소하다 2002년 이후 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약간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살에 의한 사망은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자살자 수가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섰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15,413명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0%나 증가한 수치이다.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 1위라는 사실만 강조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자살률 증가가 아니라 자살예비군의 급증이다. 2009년 자살자는 15,413명인데, 자살예비군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추정해 보자. 청소년상담원이 2007년 청소년 4,5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명 중 59명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고, 100명 중 11명이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

올해 5월 30일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2030세대 성인남녀 1,837명에게 조사한 결과, 42.5%는 ‘스트레스로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답했다. 특히 22.5%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봤다’고 해 스트레스가 심각함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자살자는 15,413명(2009년)이지만, 자살

시도자 즉 자살예비군은 22.5%이므로, 전체인구 5천만 인구에 22.5%를 대입하면 1,150만 명이란 숫자가 나온다. 2030세대 성인남녀 22.5%가 ‘자살을 시도해봤다’는 것은 이처럼 믿기 어려운 엄청난 숫자가 도출된다. 그만큼 자살예비군이 폭넓게 확산되어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또 응답자 중 99.2%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고, 강도는 ‘심각한 수준’이 50.4%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극심한 수준’은 12.9%여서 63.3%가 심각한 상태였다(4).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심각한 사람은 100명 중 63.3%이므로, 전체인구 5천만 명 중 3,165만 명이란 숫자가 도출된다. 스트레스가 심각한 사람이 약 50%가 상회할 것이란 조사결과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조사결과가 이전 보다 훨씬 악화되었고, 청소년과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는 심각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의 핵심은 자살률 증가가 아니라 자살예비군이 우리 사회에 폭넓게 확산되어 있다는 점, 문제의 핵심은 자살률 증가와 자살자 숫자 15,413명(2009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할 수 있다.

자살원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개인적 고민, 둘째 사회구조적 문제, 셋째 죽음과 자살에 대한 오해. 어떤 자살이든지 3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데, 개인적 원인과 사회구조적 문제의 경우, 해결해 주기가 쉽지 않다. 자살률이 왜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것인지 문제를 추적해 보았더니, 개인적 문제와 사회구조적 문제도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그 근원에는 죽음에 대한 오해, 육체 중심의 인간이해가 오해의 근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자살자는 죽으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오해하고 있으므로, “자신만 죽어버리면 된다”고 착각한다. 자살은 이와 같은 잘못된 죽음이해로부터 시작된다. 자살예방은 위기개입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통해 그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지만, 교육을 통해 죽음과 자살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줄 수 있다면, 자살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자살예방의 핵심은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자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자살은 더 큰 고통을 부른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다” 등을 가르치는데 있다. 죽음과 삶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을 학교와 사회 교육을 통해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자살 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해 전국에 자살예방센터가 만들어지더라도 위기개입과 사후관리 위주로 자살예방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자살률 증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일본도 5년 전 자살예방법이 제정되었지만, 자살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대 의대 정현채 교수도 “십대·이십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점을 볼 때 죽음준비교육은 실로 시급하다. 생명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길이 바로 죽음준비교육”이라고 말한다. 독일의 경우, 중·고교와 대학 과정에 죽음준비교육 수업시간이 1년에 10여 시간 이상 포함되고, 교재 개발에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 3. 우리 사회에 죽음 정의가 없다

먼저 죽음 정의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블랙 법률사전 Black's law dictionary』 4판에서는 죽음에 대한 전통적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죽음, 생명의 중지. 존재하기를 멈춤. 혈액순환이 체계적으로 멈췄으며 그 결과로 호흡, 맥박과 같은 동물적 생명 기능이 정지했다고 의사가 규정한다(5).” 또 하버드대 뇌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죽음 정의에 의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이전 보다 이식에 필요한 장기의 활력 조건이 크게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뇌는 죽었지만 다른 장기는 유용한 상태인 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6).”

죽음 정의 문제를 다루는 생명윤리, 의료윤리 관련문헌을 조사했더니 심폐사와 뇌사 등 죽음판정의 육체적 기준만 논의하고 있었다. 현대 사회에 만연된 생명경시 풍조 역시 이와 같은 육체중심의 인간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인간의 죽음은 단지 뇌사, 심폐사와 같은 의학적 차원의 죽음판정의 육체적 기준의 문제로 축소되니까, 사람들의 죽음 이해 역시 육체 중심으로 한정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어느 생명윤리 전공 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정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은 육체적 죽음뿐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죽음이라는 개념은 우선 생물학적인 현상을 의미하며, 생명체 및 유기체로서의 인간의 종말로 이해된다. 다양한 종교에서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된 후에도 삶은 지속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란 육체적 지속성이 끝나고, 생명이 돌이킬 수 없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대해 의학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논란의 여지가 없다(7).”

육체의 소멸로 죽음을 말하는 것은 의학자가 할 일이다. 철학교수, 생사학 전문가, 생명윤리 전공학자, 그리고 종교인도 똑같이 육체의 소멸로만 죽음을 말해도 되는 것일까. 그의 주장대로 ‘우리가 정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은 육체적 죽음뿐’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 의학 이외에 철학과 종교, 생사학과 생명윤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생명윤리 전공학자의 말대로 죽음을 육체의 소멸이라는 말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면, 생명윤리를 차라리 ‘육체의 윤리’라고 바꾸어 부르는 게 합당할 것이다. 죽음 판정의 육체적 기준 제시와 죽음 판정기준 충족 여부 검사는 기본적으로 의학적인 문제이지만, 죽음 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종교적, 철학적, 생사학적 문제이다. 죽음판정의 의학적 기준에 불과한 심폐사와 뇌사가 마치 죽음 정의인 양 혼동되고 있는 게 문제다.

종교에서는 죽음 이후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기독교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한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종말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인 채 죽음을 당했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것처럼, 사후에 천국에서 먼저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고, 다 함께 신의 무한한 사랑에 감싸인 채 삶을 계속 이어가리라는 희망이 기독교 신앙의 근저에 있다. 인도의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니르말 흐리다이(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를 짓기도 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누구보다 많이 보신 분이다. “죽음은 고향으로 가는 것이다. 죽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은 삶의 계속이고 완성이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일 뿐이지 영혼은 계속 유지된다(8).” 신학자 존 크리스스토폴도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옷을 벗는 것이다. 육체는 영혼의 옷이다. 죽음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것을 벗어놓은 후 우리는 보다 빛나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다(9).” 또한 정진석 추기경도 “육신은 물질이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부활한 영혼의 육신은 비물질이다. 현세의 육신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10).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의미한다.

달라이 라마도 “죽음이란 육신의 옷을 벗는 행위”고 말한다(11). 티베트어로 육신은 ‘뤄’라고 불리는데 수하물처럼 사람이 떠난 뒤에 남는 것을 의미한다. ‘뤄’라고

말할 때마다 티베트인들은 인간이란 이 삶과 육신에 잠시 머무는 여행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의식이 육신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제 죽음이라 불리는 것이 그대에게 찾아왔다. 그대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그대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 세상에 남겨둔 것에 아무리 집착할지라도 그대는 이제 여기에 머물 힘을 잃었다. 그대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윤회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헤매는 것밖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그대의 마음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이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지난 사흘 반 동안 그대는 기절상태에 있었다. 기절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대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생각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사후 세계에 있다(12).”

몇 년 전 입적하신 청화(淸華) 스님도 사람의 눈에 안 보이니까 ‘영혼이 어디 있을까’ 의심을 품는 사람도 있다면서, 영혼이 우리 중생의 제한된 육안(肉眼)에는 보이지 않아도 천안(天眼), 불안(佛眼), 법안(法眼)으로 본다면 분명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죽어서 떠날 때에 ‘자기 육신이 있다’고 집착하지만, 법당에서 관욕(灌浴)을 할 때 영가(靈駕)가 분명히 몸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을 스님은 직접 느꼈다고 말한다(13).

“지금 우리 중생들의 눈에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영가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천도법어를 듣고 계십니다. 생명은 신비로운 것이어서 어떤 때는 모양이 있고 어떤 때는 모양이 없습니다. 인연 따라 과거에 지은 업의 힘으로 인해 한동안 사람의 몸을 받았다고 해도 인연이 다하면 사람 모양이 사라집니다. 사람 몸이 사라진다고 해도 생명 자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지금 천도 받는 영가들이시여! 금생에 인연 따라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가 인연이 다해 다시 저승길로 가신 것입니다. 저승길은 어두운 세계입니다. 사람도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는 등불이 없거나 안내인이 없으면 헤매기도 합니다. 죽음의 길도 그와 똑같아서 한번 죽어서 갈 길을 모르면 굉장히 괴롭습니다.....몇 십 년 동안 그 몸을 아껴왔으나 죽은 뒤에 몸뚱아리가 화장되면 재가 되고, 땅에 묻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번뇌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혜가 밝지 못한 중생들은 죽은 뒤에도 평소에 쓰던 육신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가들이 쓰시던 마음은 육신과 함께 죽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참다운 생명입니다. 몸은 뜬구름 같고 거품 같이 한동안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게 됩니다. 집

을 지을 때 나무, 흙 이것저것 다 모아서 집을 짓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이 파괴되면 집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육신도 지수화풍 4가지 요소가 모여 형상을 이루었다가 인연이 다하면 몸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14).”

생사학을 창시한 정신과 의사 퀴블러 로스도 인간 존재는 육체적, 감정적, 지적, 영적인 4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문제의 뿌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의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15). 그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는 일에 부딪혀 보기로 결정했다.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보살핀 그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육신은 껍질에 불과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은 더 이상 그 껍질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16). 죽음이 찾아오면 시체가 남는 것이지만, 시체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죽더라도 존재의 양식만 바꿀 뿐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다(17).

종양학 전문의사 로저 콜은 1984년 퀴블러 로스의 워크숍에 참가해 물리적인 육신과 분리되어 지극한 기쁨과 환희, 이 세상 것이 아닌 행복을 느꼈다(18). 그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영적인 존재이며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 이후 호스피스 의사로 활동하면서, 자기가 보살피다가 죽은 티견이란 어린애 영혼의 출현을 통해, 죽음이란 단지 ‘영혼’과 육신의 분리일 뿐이고 우리는 물리적 존재 이상의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더 이상 현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죽음이란 우리 인식의 한계를 반영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는 어느 날 환자가 숨을 거둔 직후 병실에 들어가 시신을 검사하는 동안 몸을 벗어난 영혼의 존재를 생생히 느끼기도 했다. 몸에는 생명이 없었지만, 그의 존재가 방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19).

인도 뉴델리 태생의 하버드대 의학박사 출신으로 인도 전통 치유과학인 आयुर्वेद과 현대 의학을 접목하여 정신신체의학이란 독특한 분야를 개척한 디팩 초프라는 육체적 생명을 끝내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식으로 죽음을 정의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의식의 영역을 보다 확장시켜야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죽음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그 완성이라는 증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의식경계를 확장시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과 죽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20).” 또 생사학과 호스피스의 현대적 고전 『티베트의 지혜』의 저자 소갈 린포체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죽

은 이후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증명이나 논증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이 삶에서 자지자신과 인간 존재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21).”

## 결 론

기독교, 불교, 생사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 죽음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 정의에 대한 논의를 심폐사나 뇌사와 같은 죽음판정의 육체적 기준이 대신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죽음판정 기준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죽음 정의(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에 불과하고, 죽음의 순간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므로, 영혼은 죽지 않는다. 육체의 차원에서 보면 죽음은 존재하지만,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22). 죽음은 육체의 죽음일 뿐 끝이 아니다. 따라서 죽음을 육체적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물질적 충족과 경제발전만으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다 깊이 영혼, 영성의 문제로 바라보지 못해 죽음방식이 보다 성숙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죽음의 질(Quality of Death)은 결코 향상될 수 없을 것이다.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 자신의 삶의 이해와 그 방식, 죽음의 이해와 임종방식, 그리고 인간존재의 자기 이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의사로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살피면서 생사학 연구를 시작했던 퀴블러 로스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생존 그 이상의 이유가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한 것과 같은 그런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제 죽음 정의는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것을 넘어 영혼, 정신, 삶의 의미같이 순전히 물질적인 삶과 생존 이상의 무언가 지속되는 것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23). 의학적, 법적인 접근은 단지 죽음의 육체적 측면만, 즉 죽음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분만 다루는 격이다. 육체의 죽음, 한 가지 죽음 판정기준에 국한시킨다면 삶과 죽음의 폭넓은 가능성을 제한하므로, 죽음을 보다 다양하게 한층 깊이 있게 접근해야만 우리의 삶과 죽음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자살률, 자살 충동률, 우울증 유행률, 죽음에 대한 오해와 거부감, 불행한 임종모습 등을

감안했을 때, 바람직한 죽음이해와 성숙한 임종방식을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 죽음의 질이 향상되지 않으면, 삶의 질과 행복은 결코 향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1. Chung JH. The manual for the well-dying. Seoul:Kakdang Welfare Foundation;2007. p. 41-2.
2. Kim TI. Korean students have lowest level of happiness: survey. YonhapNews 2010 May 4.
3. Kim YT. The paradox of Korea: income growth of the world's best, lowest life satisfaction of the OECD. The Chosunilbo 2011 Jan 1.
4. Lee SJ. 2030 generation 42.5% "I have thought about suicid as stress". AsiaEconomy 2011 May 30.
5. Singer P. Rethinking life & death: the collapse of our traditional ethics. Chang DI, translator. Seoul:Philosophy and Reality;2003. p. 38.
6. Singer P. Rethinking life & death: the collapse of our traditional ethics. Chang DI, translator. Seoul:Philosophy and Reality;2003. p. 45.
7. Oh JT. The understanding of death by thanatology. Chol Hak Yon Gu 2006;75:153-78.
8. Shin HB. Mother Teresa. Seoul:Dourei Publications;1997. p. 96.
9. Seol EJ. Beautiful life, holy death. Seoul:Qumran Publishing Co. Ltd;2005. p. 13.
10. Baek SH. To ask Cardinal Nicolas Cheong Jin-suk 'death' and 'resurrection'. Korea JoongAng Daily. 2010 Apr 1.
11. Sogyal R, Gaffney P, Harvey A. The Tibetan book of living and dying New York, N.Y.:HarperCollins Publishers;1993. p. ix.
12. Padma S. The Tibetan book of the death. Ryu SW, translator. Seoul:Chöngsin Segyesa;1995. p. 245-7.
13. Chungwha. The teaching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dead. Seoul:Kwangryun Press;2009. p. 138. (Chungwha sunsa böbözip vol.6).
14. Chungwha. The teaching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dead. Seoul:Kwangryun Press;2009. p. 8-13, 32. (Chungwha sunsa böbözip vol.6).
15. Kübler-Ross E. The wheel of life: a memoir of living and dying. Kang DE, translator. Seoul:GoldenOwl Inc.:BM Books;2008. p. 228.
16. Kübler-Ross E. On life after death. Choi JS, translator. Seoul:Korea dialogue academy;1996. p. 54-5.
17. Oh JT. Last present. Seoul:Sejong Books;2007.
18. Cole R. Mission of love: a spiritual guide to living and dying peacefully. Chu HK, translator. Seoul:Panmidong:Minumin;2011. p. 12-3.
19. Cole R. Mission of love: a spiritual guide to living and dying peacefully. Chu HK, translator. Seoul:Panmidong:Minumin;2011. p. 74-5, 96.

20. Chopra D. Life after death: the burden of proof. Chung KR, translator. Seoul:Haingbokwoomul;2006. p. 17.
21. Doore G. What survives?: contemporary explorations of life after death. Los Angeles:J.P. Tarcher;New York:Distributed by St. Martin's Press;1990. p. 203. (New consciousness reader).
22. Kübler-Ross E. On life after death. Choi JS, translator. Seoul:Korea dialogue academy;1996. p. 39.
23. Kübler-Ross E. The wheel of life: a memoir of living and dying. Kang DE, translator. Seoul:GoldenOwl Inc.:BM Books;2008. p. 225-6.